

* 팀NO : 2019- 48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인도네시아 (6팀)

공항 :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스마랑

3. 사역기간 : 2019년 11월 1일(수) ~ 11월 7일 (목) / (6)박(7)일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한

JMS

이성희 9/22

NC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선집	송문식 SONG MOON/SHIK II			92-632					
2	총무	선집	김진강 KIM JINGAB	6		00-241					
3	서기	선집	염기자 YEUM K'JA	II		88-959					
4	회계	선집	박은주 PARK EUNJU	1		82-532					
5	의료	선집	윤상희 YUN SANGHEE	II		4826					
6	찬양	선집	이희순 LEE HEE SOON	15		2844					
7											
8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수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9/15

황수민

9/22

정재영

- 윤명자 권4 -

인도 네시아 스마랑 지역 처음간 선교 집니다 말로만 들던 무슬림이
의이 많이 있는 지역 보석 같은 땅을 얻은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 교회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교회에 기도와 찬양 말씀 통한 예배시간에 먼저 헌양
구마우 전다 예수 슬라 마냐, 엘링 엘링, 갈라 나마 예수스 찬양을
통해 예수 안에 한형제인 마음이 커나오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영혼에 양육되고 양육 됨이 감사 합니다

교회 마다 교회 가가운 주변에 무슬림 인들이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성전에 돌을 던지고 침투어도 신앙 생활 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복을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쓰실것을 믿습니다

교회 문앞에 사는 예수님 만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꼭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함을

죄송 했습니다 성도들의 전도 방법은 관계가 삶에서 반대로
먼저 이루어 지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 오는자가 전도의
열매 랍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때에
선교사님을 모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생겼다고 감사 합니다

목사와 성도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고 하나님의 공로이 없으면
살수 없는 성도 들 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인도 네시아 선교를위하여 영혼 품고 기도 할수 있도록
돕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아멘

소감문

연기자

인도네시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이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여 떨림과 설렘으로 임하여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만나는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마음 가득히 심어지기를
바라며 시작하였다. 우리가 향한 12개 교회와 가정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날이 부흥하기를 기도하며 어린이사역 시작하였다.

천지창조를 시작하며 40~50명 어린이와 선생님 눈망울이 반짝 반짝
빛나고 집중하는 모습에 이모습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빛내는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에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었다 50주년 감사예배에 신앙간증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보았고 또한 반등안 지역의 교회 또한 작은 교회들과
가정교회를 오로바이 이용하여 먼나먼 거리를 오가며 살피시는
옛노목사님과 5키로미터가 넘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방문
하는 성도를 기다려주며 6명의 자녀를 둔가정 그따뜻한 마음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워준다 갈리삿지역, 두세사람 모인가정에서
교회가 어서속히 세워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리나
성도는 자기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반겨주었고 무슬림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찬양도 할수없고 가진 핍박을 당하는 가정 남편의
핍박으로 웃음을 잃어가는 여자성도 모습에 마음에 시련을 느꼈다
우리는 예수안에 한가족 한 형제라 말하니 힘이 된다면

한박 웃음에 " 다음에도 와주세요 " 부탁하였다

모든예배 자리에 손에 손잡고 천지어로 찬양과 기도하며 한마음
이 되었다. 우리는 잠깐 방문 하면서 많은것을 잃어간양 고맙했음
을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을 주어 져음에도
감사하지 못한죄 용서해 주시길 기도 합니다

소 감 문

이희순

인도네시아 두 번째 선교입니다

8월에 자카르타에 이어 이번엔 세마랑에 다녀왔습니다

다시보아도 육으로도 영으로도 가난한나라 ~~

그러나 희망이 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부자입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과 교제로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이 보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에 임재로 부자입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형식적이지 않고 가슴과 온몸으로 진정으로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목사님들의 수고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택함을 받은자들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입니다

교회건물이 없는데 가정집을 기꺼이 예배할 장소로 제공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 하지만 최선을 다해 떡을 땁니다

무슬림에 핍박으로 몸과 맘이 상하지만 올곧게 복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그들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조금만 아끼면 한아이의 등록금이 마련되는데

우린 한아이의 등록금이 아닌 몇 명의 아이들의

등록금을 하루에 먹고 쓰는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더 생각하며 낭비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할 때 아멘으로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진정으로 더 주님을 사랑 하렵니다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온 무표정에 자녀들 피곤함에 젖어서 예수님께 귀중함을 못보는 우리 자녀들 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기도하렵니다

인도네시아 복음 사명에 주춧돌로 든든히 세워주실 하나님은혜와 섭리가 기대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 합니다

< 인도네시아 스바방 지역 사역 소감문 >

인도네시아 5월 백운주 전사.

"누구든지 주리아들은 부끄러움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말리 이르하노니 이제 어찌 부끄러워
듣지도 못하겠나니 이제 받으리라
전파 하노자라 없이 어찌 들리랴
보혜성을 받쳐 이르하였음은 이제 전파 하리라
기독교인아 이집집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빛이여 한과 같은가"

(조 10:13~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소명을 주시고 인도네시아 스바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4명이 처음가는 곳이였지만
6명이 왔는데서

많은 사역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 마음으로 도주했습니다
이이 그들중 우리를 "예수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라는 마음으로
받아드려 각교회와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모두 마음부터 감동하여 해방이 되었음을
사역기간내에 느낄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찬양이 그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예배로 이어져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래도 양에서 "대관 예수스 기라 베르사우다" (예수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
가 흥얼거려지며 은혜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스바방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선교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성을 키워며 살아있는 그들이
우리같이 한데 모일수 있는 복음의 전파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행복하게 헌신하는 영혼의 생명이 되기를